

## 섬섬이 보이는 풍경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전설이 전해오는 섬섬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자연의 소중한 보물을 품어왔다. 천연기념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섬섬이 보여주는 풍경을 만나보자.



**문필로** | 서귀포시 보목동 1351 ~ 서귀포시 보목동 893-8(약 1.4km)

**보목로** | 서귀포시 보목동 1312-1 ~ 서귀포시 보목동 758(약 1km)

**보목포로** | 서귀포시 보목동 412-2 ~ 서귀포시 하효동 1304-6(약 2.5km)

**서리오름로** | 서귀포시 보목동 416-1 ~ 서귀포시 신호동 770(약 2.8km)

**마소물로** | 서귀포시 보목동 668-4 ~ 서귀포시 토평동 242-4(약 1.9km)

## 문필로 | 썰섬과 문필봉

문필로는 썰섬을 마주보는 해안가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썰섬의 가장 윗 봉우리에 있는 암석의 모양이 붓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문필봉이라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문필봉 덕분에 마을 출신 교육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필봉을 잘 볼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로 문필로라 이름을 붙였다. 문필봉이 있는 썰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섬으로 난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다. 특히 멸종위기 식물인 파초일엽의 자생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썰섬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썰섬에 커다란 뱀이 살고 있었다. 용이 되고 싶었던 뱀은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다. 뱀의 정성에 감복한 용왕은 썰섬과 지귀섬 사이에 용이 될 수 있는 야광주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 주었다. 뱀은 두 섬 사이를 한없이 왕래하며 야광주를 찾았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암초와 깊은 바다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백 년 동안이나 야광주를 찾아다니다 한을 품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문필로 인근에는 썰섬을 자세히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섬에 직접 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썰섬

## 보목로 / 보목포로 | 보목동

보목로는 보목동의 중앙을 통과하는 중심도로이다. 보목동은 옛날 고막곶과 물통동산이라고 불리던 곳에 백씨와 조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보목리의 명물은 자리돔이다. 아주 작은 물고기인 자리돔은 제주에서는 봄철에 주로 잡는다. 특히 보목동은 자리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곳이다. 자리돔은 보통 자리물회로 많이 먹는데 제주에 온 관광객들은 한 번쯤 맛 보았을 만큼 제주의 대표 음식이다. 보목리는 자리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매년 자리돔축제를 개최해서 자리돔을 마을의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



보목포구

**보목로**와 더불어 마을 이름이 반영된 **보목포로**는 칠십리로와 보목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하효항까지 이어지는 길로 보목포구와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 보목리의 해안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길의 중간에는 제지기오름이 있다. 옛날 이 오름에 절이 있었는데 절을 지키는 절지기가 살았다고 해서 절지기오름이라고 부르다 제지기오름이라고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한라산과 여러 오름들을 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보목리 앞바다의 섬들과 바다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서리오름로/마소물로 | 서리오름과 모시물

보목포로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보목천을 따라 **서리오름로**가 이어진다. 이 길은 도중에 만나는 서리오름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설오름이라고도 불리는 이 오름은 50m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주변이 밭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쉽지 않다.

아름다운 쉼터를 떠나 북쪽으로 문필로를 따라 올라가면 마소물로와 이어진다. **마소물로**는 보목동과 토평동의 경계에 있는 냇물인 모시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 물은 마수라고도 불리는데 삼포왜란 때 송산동 해안으로 왜군이 침입해 오자 이를 막기 위해 집결한 군사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서 가뭄이 들 때는 이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